

돼지생산조절 에 대한 농수 산부장관 친서

농수산부 장관은 전기업 규모의 농장에 대해 자율생산 조절하여 1983년 6월 수준으로 줄이라는 요지의 친서를 개별 농장에 보냈다. 전문을 소개코자 한다.

—편집자주—



박 중 문

농수산부장관

그동안 양돈경기의 호조에 따라 돼지 사육두수가 계속 증가되어 '83, 12월말 현재 54만 농가에서 365만두의 돼지를 사육하고 있고 모돈수도 61만두에 이르고 있으며, 이러한 사육두수는 지난 '82년 말에 비하여 150만두가 증가된 것으로서 돼지고기의 소비량증가보다 생산이 지나치게 과잉되어 돼지가격의 하락을 초래하였으며, 모돈의 경우도 무려 17만두가 늘어나 과잉생산의 소지를 많이 내포하고 있습니다.

83년 7월 이후 정부에서는 모돈을 비롯한 사육두수감축을 통한 돼지생산조절로 돼지값을 안정시키고자 총력을 기울여 왔으나 많은 양돈농가들이 정부의 자율적 생산조절대책을 외면함으로써 현재에도 돼지값이 생산비이하로 거래되고 있으며 양돈불황이 장기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이와 같은 돼지값 하락으로 대다수 영세부업 양돈농가의 잠재적 불만이 노정되어 기업양돈가들이 양돈에 참여하여 농가소득원을 위축시키고 이 불황기간에도 돈사를 신증축하고 있는 일부 기업양돈가들에서 대하여 영세양돈농가들의 원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기업양돈장 인근의 부업 양돈농가는 생산조절의 측면에서도 기업양돈장의 사육두수증가에 따라 앞으로의 방향을 결정하려는 경향이 많은 이 어려운 시점에서도 기업양돈가는 결코 줄이지 않고 있다고 탐문(探問)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돈사업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사회적으로 선도적이고도 큰 책임을 지고 있는 귀하께서는 양돈불황의 조기종식을 통한 양돈산업의 지속적 안정과 기업양돈이 처해 있는 현재의 상황등을 감안하여 적극적이고도 선도적인 위치에서 다음 사항을 필히 이행하여 사회적인 물의야기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첫째, 돼지사육두수를 '83년 6월 수준이하로 감축
- 둘째, '83년 12월 현재 보유모돈의 25% 이상 감축
- 셋째, 모돈 및 생산자돈 중 암돼지의 대농가 판매금지
- 넷째, 돈사 신·증축의 금지와 착공치 않은 돈사의 신축 금지
- 다섯째, 인근 부업농가(마을단위)와의 계약에 의한 계열화 생산 실시

여섯째, 각 시·도의 사육동향 조사 및 모돈감축 현황보고에 대한 적극협조

끝으로 귀하와 귀하의 가정에 항상 행운이 같이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1984년 2월 일
농수산부장관 박 중 문